

초청의 말씀(인사말)

시민초청 무차대회에 참석해 주신 빈곤연대 소속 단체와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무차대회에서 고단하고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에 담아왔던 얘기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들을 편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결핍과 빈곤은 자연재해와 질병, 전쟁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현재의 빈곤은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나아가 자본과 물질에 우선하는 무한경쟁과 인성경시의 사회문화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높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제도적으로 양산되는 ‘빈곤화 성장’과 ‘양극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질병과 장애, 빈곤과 차별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이 경시되고 ‘가족’이 무너지는 현실에 당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사회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복지 사각지대라 불리는 곳에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 극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은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넘어 부끄럽고 암담한 현실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권리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그 자체로 존엄해야 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인류는 20세기 전쟁의 참상을 거치면서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품위있는 생활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불자들도 ‘중생무변서원도’를 매일 서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럿이 하나를 구할 수는 있어도 하나가 여럿을 쳐다보기 어려우며 모두가 십시일반(十匙一飯)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오늘 무차대회의 깊은 뜻이며,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자는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10여 곳의 사찰이 정성을 모았습니다. 향기로운 마음으로 참여하신 스님과 신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사찰과 불자들이 깊은 관심으로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조계종’의 발원을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신 도법스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소찬이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공양하시고, 무거운 짐 하나라도 내려놓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2014)년 9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자승